

韓OTT, K콘텐츠로 적자 벗어난다

예능·스포츠 앞세워 글로벌 맹추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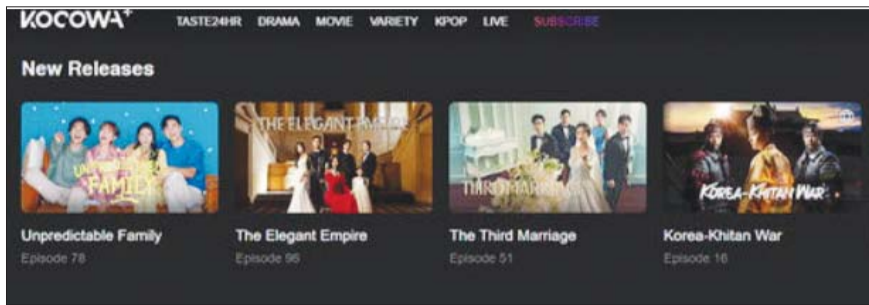
웨이브, 유럽·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미주지역 35개국 포함 74개국 제곱
티빙, 평균시청 시간 넷플릭스 앞질러
스포츠 중계 도입 이용자 수 20%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돌파구를 마련하며 글로벌 OTT를 맹추격하고 있다. 웨이브는 국내 최초 유럽에 진출하는가 하면 티빙은 스포츠 부문을 확대하며 수익성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수도 연일 증가하면서 국내 OTT업체들이 적자폭을 탈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는 2020년도 66.3%에서 2021년 69.5%, 2022년 72%, 2023년 77%로 크게 늘었다. OTT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 또한 2020년 21.7%에서 57%로 급증했다.

그동안 토종 OTT 업체들은 적자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콘텐츠 투자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SK스퀘어 자회사 웨이브는 막대한 비용 필요한 영화 장르보다는 예능·시사교양장르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은 2480억원으로 9.4% 줄었지만 핵심 수익원인 유료 이용자 구독료 매출(미디어 매출)은 2193억원으로 제작년 대비 7.1%(146억원) 증가했다. 특히 영업손익은 -791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제작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32.9% 줄었다.

웨이브는 또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웨이브는 지난 3일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를 통해 유럽·오세아니아 지역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주지역 35개국을 포함해 총 74개국에 OTT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태현 대표는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다



웨이브는 코코와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각)부터 유럽·오세아니아 39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웨이브

각화,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내 월 단위 손익분기점(BEP) 돌파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빙, 1인당 평균시청 시간 넷플릭스 앞질러

티빙은 유무선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하며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이 넷플릭스를 앞질렀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의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은 지난해 2월(469분)보다 7%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491분에서 422분으로 14.1% 감소했다. 그동안 티빙의 주요 시청자 지표 가운데 넷플릭스를 넘어선 적은 단 개도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티빙이 제공하는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CJENM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은 올해부터 3년간 한국 프로야구(KBO)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 CJ ENM은 KBO 중계권 계약에 총 135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연평균 450억원으로, 네이버 등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계약한 지난 계약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티빙은 대규모 투자 비용을 넘어선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티빙이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도입한 직후부터 이용자 수가 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티빙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는 661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 전월 대비 12.6% 증가한 656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0.8% 더 증가했다. 하루활

성이용자(DAU) 증가율은 지난달 역대 최대 수준인 165만 명에 달했다.

반면 넷플릭스의 MAU는 지난해 12월 1306만 명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1월 1282만 명, 2월 1252만 명 등 전월 대비 각각 1.8%,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DAU도 316만 명에서 307만 명, 282만 명으로 줄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DAU는 올해 1월 2.8%, 2월 8.1% 감소했다.

◆OTT 구독, 스포츠 중계 영향... 적자 탈피는 '글세'

실제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국내 OTT 이용자 2명 중 1명은 특정 OTT를 구독하는 데 스포츠 생중계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 메조미디어가 지난 26일 발간한 2024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는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OTT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OTT를 통해 스포츠 생중계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면서 스포츠 콘텐츠가 OTT 시장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토종 OTT의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웨이브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인 감사보고서에 "영업손실 및 당기 순손실이 각각 803억7300만원과 1191억 2000만원 발생했으며 누적 결손금은 4828억2900만원, 당기말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983억3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연결실체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ool.co.kr

벤처協, 분당갑 이광재·안철수 후보 대담회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해결 과제 제시

벤처기업협회가 국회의원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벤처협회는 지난 3일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안철수 후보와 판교 인근에서 대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벤처협회는 대담회에서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로 ▲지역 내 유입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 인프라 확충 ▲판교 근무자를 위한 주거공간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내 입지공간 포화로 인한 기업의 확장 제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이후부와 안후보는 이에 대한 견해와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 ▲우수 인재 육성 및 확보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사회자인 더컴퍼니즈 문경미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의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초청 대담회 영상은 벤처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성상업 벤처협회장은 "이번 대담회는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만나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SK이노, ESG 우수협력사에 컨설팅 지원

계열 협력사 80여곳 초청해 '동반성장-ESG세미나' 개최

SK이노베이션이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 중구 SK행복타운에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부브 등 SK이노베이션 계열과 거래하는 협력사 80여곳을 초청해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협력사 ESG 경영 현황을 소개하고, '제3차 ESG 우수협력사 인증·포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37개 협력사에게는 인증패와 SK이노베이션의 ESG 컨설팅 이용권이 증명됐다. 우수협력사는 ESG 컨설팅 이용권을 통해 ISO 인증,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이자 지원과 ESG 평가 담당자 대상 1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2년부터 협력사의 자발적인 ESG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자 ESG 우수협력사를 인증·포상해왔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ESG 우수협력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 ESG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올해는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실사와 공시를 의무화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에 따른 영향과 이에 따른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업무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들의 ESG 경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ESG 컨설팅 및 리스크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ESG 컨설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인사노무 종합진단, 2차 협력사 ESG 원데이컨설팅 등을 주제로 지난 달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6월부터는 ESG 리스크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평가결과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고위험 협력사는 개선 계획 수립과 개선 이행 활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 속에서도 ESG경영에 힘써 주신 협력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CJ대한통운 "고객사 특성 맞춤형 관리"

기업별 맞춤 컨설팅·배송 등 '주목' 물류 효율 증대... 고객사 ESG 도움

CJ대한통운의 물류 컨설팅사업이 고객사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업·산업별 맞춤 컨설팅 제안부터 센터 설계, 배송에 이르는 공급망 관리(SCM) 역할 수행을 통해 고객사의 물류 비효율 제거에 특화된 역할을 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공산품·H&B·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은 단순 컨설팅을 넘어 물류창고 운용 및 배송까지 이어지



CJ대한통운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AGV를 운영하고 있다.

는 3자 물류(3PL)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운영 역량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고객사 물류운영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물류컨설팅은 최근까지 국내 일부 물류

기업과 자동화설비를 갖춘 중소기업 일부만이 참여하는 시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은 ▲식품·패션·뷰티·가전·자동차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운영역량 ▲TES 물류기술연구소 기반의 첨단기술 ▲300여명의 물류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토대로 한 '고객 맞춤형' 물류 컨설팅을 무기로 삼았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류체계 비효율 개선, 센터 설계와 운영 프로세스 혁신(PI), 물류네트워크 전반 설계 등 컨설팅 유형을 총 7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국제대회 격상

오는 10월 24일 인천 송도서 개최

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올해부터 국제 대회로 격상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오는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코리아 챔피언십 프레젠티드 바이 제네시스(이하 코리아 챔피언십)'를 통합한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DP월드투어와 KPGA 투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국내 남자 골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제네시스가 개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KPGA 투어 대회다. 우승자에게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출전권을 제공하는 등 한국 선수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해왔다.

규모를 키운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양성운 기자 ysw@